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경계를 표현한 도자조형 연구  
-공간을 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A study on ceramic sculptures expressing boundaries.

- For the purpose of perceiving space -

2022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윤 선 혜

경계를 표현한 도자조형 연구  
-공간을 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A study on ceramic sculptures expressing boundaries.

- For the purpose of perceiving space -

지도교수 김 대 용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윤 선 혜

윤선혜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심사위원장 김 재 용 (인)

심사위원 유 의 정 (인)

심사위원 김 대 용 (인)

## 요 약

제 목 : 경계를 표현한 도자조형 연구 -공간을 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은 공간 내에서 활동하며 공간과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지각한다. 이러한 인간의 시지각적 공간 경험은 추상적 발상에 의해 조형적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공간에 대한 태도로서 작품에 반영되어지며 새로운 차원의 공간지각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본인이 경험한 낮선 공간에서 물체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읽어내고, 그 경계를 본인만의 조형언어로 제작함으로써 공간을 표현하고 지각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경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경계는 공간개념과 함께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형상과 배경에 관한 논의를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에드가 루빈의 얼굴, 꽃병(Rubin's vase)에서 알 수 있듯이 형태와 배경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작품 사례연구를 통해 경계와 공간의 조형적 표현에 대해 알아본다. 작품의 시각적 요소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작가와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과의 소통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다. 또한 작품의 표현방식은 작가의 지각행위와 시각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 시각적 요소가 의미와 관련해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작가에 따른 다양한 해석과 접근법은 본 연구를 해 나감에 있어 공간 지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작품 제작에서는 작품 계획에 입각하여 본인이 경험한 낮선 공간을 사진으로 기록하였고 드로잉을 통한 경계의 형태를 도출하였다. 또한 흑 화장토 사용에 따른 소성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설치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작품 해설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낮선 공간에서 지각하고자하는 비어있는 공간을 조형 언어인 경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경계표현을 통해 공간을 지각하는 방법론의 제시로 의의가 있다.

# 목 차

요약 .....	i
표목차 .....	iii
도목차 .....	iii
작품목차 .....	iv
<b>I. 서론 .....</b>	<b>1</b>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b>II. 이론적 배경 .....</b>	<b>3</b>
1. 경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3
1) 경계의 개념 .....	3
2) 경계의 표현 .....	4
2. 경계와 공간에 관련한 작품사례연구 .....	10
<b>III. 작품제작 및 해설 .....</b>	<b>16</b>
1. 작품계획 .....	16
2. 제작과정 .....	17
3. 작품해설 .....	21
<b>IV. 결론 .....</b>	<b>30</b>
참고문헌 .....	31
영문초록(Abstract) .....	32

## 표 목 차

〈표 1〉 조각에서의 공간개념 변화 .....	6
---------------------------	---

## 도 목 차

[도 1] 루빈의 얼굴, 꽃병 그림 .....	3
[도 2] Claude Monet〈건초더미, 늦여름〉. 1890-91, .....	7
[도 3] Claude Monet〈늦여름 아침의 건초더미〉. 1891 .....	7
[도 4] Claude Monet〈지베르니 근처 석양의 건초더미〉. 1891 .....	7
[도 5] Claude Monet〈석양의 건초더미, 얼어붙은 날씨〉. 1891 .....	7
[도 6] Claude Monet〈루앙 대성당 : 태양의 인상, 황혼〉. 1892-94 .....	7
[도 7] Claude Monet〈루앙 대성당 : 태양의 인상〉. 1892-94 .....	7
[도 8] Claude Monet〈루앙 대성당 : 파란색 조화 속의 아침 햇살〉. 1894 .....	8
[도 9] Claude Monet〈대낮의 루앙 대성당〉. 1894 .....	8
[도 10] M.C. Escher〈평면의 규칙적인 분할〉. 1957 .....	8
[도 11] Greg Payce 〈Entre La passion et la raison〉. 2008. ....	10
[도 12] Naum Gabo 〈구축된 머리(Constructed Head No. 2)〉. 1916 .....	11
[도 13] Rachel Whiteread 〈One Hundred Spaces〉. 1995. ....	12
[도 14] Rachel Whiteread 〈Detached III〉. 2012 .....	12
[도 15] Rachel Whiteread 〈House〉. 1993. ....	12
[도 16] Rachel Whiteread 〈House〉을 위한 연구. 1992. ....	13
[도 17] Bruce Nauman 〈Square Depression〉, 1977-2007 .....	14
[도 18] Bruce nauman 〈Untitled〉. 1965 .....	14
[도 19] Anish Kapoor 〈Cloud Gate 구름대문〉. 2004 .....	15
[도 20] 사진 기록 .....	17
[도 21] 드로잉 .....	18
[도 22] 성형과정 .....	19
[도 23] 1차 소성 후 색 화장토를 바른 뒤 2차 소성 가마재임 후 .....	20
[도 24] 설치방법 .....	20
[도 25] 전시전경1 .....	27

[도 26] 전시전경2 .....	28
[도 27] 전시전경3 .....	28
[도 28] 전시전경4 .....	29
[도 29] 전시전경5 .....	29

## 작품목차

[작품 1] space perception 1 .....	22
[작품 2] space perception 2 .....	23
[작품 3] space perception 3 .....	24
[작품 4] space perception 4 .....	25
[작품 5] space perception 5 .....	26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공간개념은 과학과 철학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주요한 주제였다. 모더니즘 이전의 공간개념은 매스(Mass)중심으로 이였으나 20세기 초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주요 요소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에 매스(Mass) 중심에서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이해되어왔던 비어있는 공간을 작품의 중심요소로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변화된 시대상황은 예술가들이 공간을 새롭게 지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창작소재로써 적극 수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 또한 공간을 흥미로운 창작소재로 생각해오던 중 처음 마주한 낯선 공간과 같이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들어설 때면 존재하지만 쉽게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 의문이 생겼고 그것이 연구의 시작이었다. 이후 본인은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함에 대해 어떻게 시각적인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이를 지각 할 것인지 연구했다. 빈 공간이 ‘있음’ 이라고 말할 때 이 ‘있음’ 이라는 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지각할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빈 공간의 ‘있음’ 을 물체의 경계로서 표현하고자한다. 물체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읽어내고, 그 경계를 도자라는 물질을 통해 작품으로 제작하여 조형언어로서 표현하고 빈 공간의 ‘있음’ 을 지각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의 비어있는 공간을 물체의 경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읽어내고, 그 경계를 조형언어로 제작함으로써 공간을 지각하고자 한다. 경계를 통해 비어있는 공간을 지각하는 주체에 있어서는 본 연구자이며 본인이 경험했던 낯선 공간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한다.

둘째, 경계를 읽어내기 위해 물체와 공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물체와 공간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물체의 윤곽선을 따라 드로잉 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경계를 토대로 주제표현을 연구하고 제작한다.

넷째, 전시공간에 작품을 설치하여 경계를 통해 공간을 지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경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경계의 개념

본 연구자는 비어있는 공간의 ‘있음’을 물체의 경계인 윤곽선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계의 개념과 공간과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최초의 경계는 인간이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요구에서 생겨났다. 이후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경계 또한 물리적인 요구에 의해 나타났다. 이러한 경계의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간되는 한계, 물리적인 존재를 무한함으로부터 구분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자가 낮은 공간에서 지각하고자하는 비어있는 공간은 물체(Object) 외의 공간이며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거나 점유되지 않은 공간이다.

이러한 경계와 공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형상과 배경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형상과 배경에서 구체적인 형상은 물질로 존재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형상의 특징을 구분하는 배경을 통해 형상은 이해되고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오브제가 놓여 지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공간은 새로운 이미지의 합을 만들어 낸다. 오브제는 형체를 가지고 있고 공간(배경)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경계하는 윤곽선은 사물의 형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서로 다른 두 공간을 구분하는 비어있는 공간의 형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도 1] 루빈의 얼굴, 꽃병 그림

이처럼 형태와 배경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에드가 루빈은 이러한 형상과 배경에 관한 논의를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루빈의 얼굴, 꽃병(Rubin's vase) 그림 [도 1]은 꽃병의 배경이 되는 빈 공간이 착시 현상을 일으킴에 따라 옆모습의 두 얼굴 윤곽을 형성한다. 이것은 시야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꽃병이 될 수도, 얼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대상을 동시에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먼저 인식한 대상의 윤곽을 포함 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이 그것의 배경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상의 윤곽선을 경계로 무엇에 시야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이처럼 형상과 배경의 구조는 무엇을 바라보는 지에 따라 배경이 형상이 될 수도 형상이 배경이 될 수도 있는 상보성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그의 저서에서 “형(形)은 눈에 의해 포착된 대상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이다.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 면모를 가리킨다. 즉, 형은 우리에게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옆에 누워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형은 어떤 형체(mass)의 윤곽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3차원의 물체가 2차원의 면(面)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sup>1)</sup>” 라고 말하며 이러한 형을 경계하고 있는 공간을 배경이라고 정의 한다.

## 2) 경계의 표현

경계 표현은 미술 분야와 그 외의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문학, 영상, 건축, 미술에서의 경계표현에 대해 활용한 것을 이해하며 본 연구에서의 경계 표현 방법을 고찰한다.

문학에서 열두 가지의 경계표현으로는 크게 사물, 건축물, 장애물, 깨지는 물건, 이동 가능한 물체, 흔들리는 사물, 굳기를 가지는 물건, 끈, 선, 장소, 경험, 지식대상<sup>2)</sup>등이 있다. 이처럼 문학에서는 경계에 대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여 여러 방면으로 사용한다.

---

1) 루돌프 아른하임, (2000),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옮김, 미진사. p.53.

2) 최은지, (2017), “전경과 배경의 경계를 활용한 정보표현과 사용자 기억인출 효과”, 석사학위논문, p.30.

영상의 경계는 사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화면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화면분할의 형태로 빈번하게 사용되며 분할된 프레임의 개수, 형태, 위치, 색상 등에<sup>3)</sup> 따라 사건의 흐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영상에서 경계표현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두 가지의 사건이 서로 다르게 편집하며 가장 큰 효과성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차로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이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건축에서 경계표현은 공간의 영역을 형성하며, 다른 영역과 구분 짓고 매개하며 영역구성과정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경계는 두 영역 혹은 전경과 또 다른 전경 사이(Between)을 뜻하기도 하며, 전경들의 영역적 한계를 의미하는 울타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전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sup>4)</sup>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 표현의 사용 방법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이후 미술에서의 경계표현을 고찰하였다. 미술에서 경계의 인식 변화는 공간개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양감중심의 주제와 달리 현대에서는 빈 공간과 변화하는 경계면이 주목 받고<sup>5)</sup>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공간개념에서 20세기 이후 과학과 철학의 발전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본격적으로 조각의 주요 요소로서 여겨지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공간개념 지각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에 힘입어 입체주의, 미래주의, 구축주의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에 접근하였다.<sup>6)</sup> 사실주의적 전통에서 해방시킨 회화혁명인 입체주의는 전통적 원근법과 명암법에 의한 사물의 재현을 지양하고, 자연의 형태를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상으로 환원시켜 재구성하였다. 대표작가로는 피카소, 세잔, 브라크 가있다. 미래주의는 기존의 정적인 주제와 표현방법을 지양하고 역동적인 감동을 선언문과 작품의 제작을 통해 전달하려 하였다. 과학기술문명을 찬양하고 그것을 작품에 드러내고자하였다. 미래주의는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지속개념은 모든 사물의 윤곽선을 부정하였고 시간과 운동을 분리 할 수

3) 최은지, (2017), 위의 논문, p.31.

4) 최은지, (2017), 위의 논문, p.34.

5) 김성웅, (2007), “안과 밖의 공간(空間) : 탈근대 공간의 불확정성, 상대성, 변화하는 경계적 특성에 대하여 = (The) space of inside and outside”, 석사학위논문, p.28.

6) 한지현, (1998), “나움 가보(Naum Gabo)의 구축주의 조각-빈 공간의 조형화”, 석사학위논문, p.6.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구축주의는 공간을 독자적 조형으로서 작품에 수용하였으며 과학기술을 직접 작품에 사용하며 이를 반영하였다.

〈표 1〉 조각에서의 공간개념 변화

시기	개념	인식	배경 및 영향	특징	
19c 이전	포지티브	mess중심의 물체 재현적 인식	레오나르도 다빈치 원근법, 해부학의 발전	물체가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	르네상스
20c 이후	네거티브	공간의 새로운 인식 시간의 개입	맥스 프랭크의 양자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 베르그송의 지속개념	이전의 의미에서 벗어나 작품의 주요요소로서 표현	입체주의 미래주의 구축주의

이와 같이 공간개념의 변화에 따라 경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경계의 표현방식도 변화하였다. 15세기 초 “화가들이여, 그대들은 육체를 선으로 둘러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연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다. 선에 의해서 그 양측은 구분 할 수 있지만, 육체의 각 부분의 거리는 보아서 알 수가 없다.” 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했다. 이 말을 뒷받침하듯 그는 ‘스푸마토 기법’을 도입했다. ‘스푸마토 기법’은 연기같이 색을 변화시켜서 색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도록 부드럽게 표현하고, 물체의 윤곽선을 자연스럽게 번지게 하여 그리는 명암법에 의한 대기 원근법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공간개념이 변화할 때 인상주의의 대표적 화가 모네(Claude Monet, 1840-1926)는 건초더미를 주제로 1890년 늦여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계절의 변화에 의해 달라지는 인상을 그렸다. 일기와 시각에 따라 변하는 빛을 관찰하여 건초더미의 그림자 모양과 길이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 그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도 2] Claude Monet<건초더미, 늦여름> . 1890-91, 유화



[도 3] Claude Monet<늦여름 아침의 건초더미>. 1891, 유화



[도 4] Claude Monet<지베르니 근처 석양의 건초더미>. 1891, 유화



[도 5] Claude Monet<석양의 건초더미, 얼어붙은 날씨>. 1891, 유화

건초더미와는 달리 <대성당>에서는 대부분 같은 각도에서 관찰되어 빛이 달라짐에 따라 형상의 변화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좌) [도 6] Claude Monet<루앙 대성당 : 태양의 인상, 황혼>. 1892-94, 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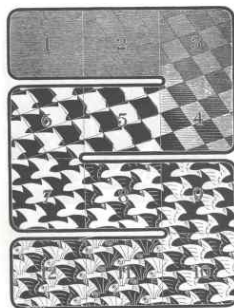
우) [도 7] Claude Monet<루앙 대성당 : 태양의 인상>. 1892-94, 유화



좌) [도 8] Claude Monet<루앙 대성당 : 파란색 조화 속의 아침 햇살>.1894, 유화  
 우) [도 9] Claude Monet<대낮의 루앙 대성당>. 1894, 유화

이러한 모네의 작업에서 현대의 변화한 공간개념을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성당과 같은 건축물은 늘 똑같이 그려졌지만 모네는 빛에 의해 다르게 인식되는 건축물을 보며, 내부의 공간의 기능과 형태는 바뀌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경계면은 다양한 모습을 띠는 것을 표현했다.

20세기 초 동판화가 에셔(M.C. Escher)는 판화 작가이며 형상과 배경 사이 경계의 모호함에 대해 다양한 실험을 했다. 그의 테셀레이션(tessellation)<sup>7)</sup> 작품에서는 서로 맞닿는 형상들 사이의 윤곽선은 이중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윤곽선은 내·외부를 결정짓는 경계면의 역할을 한다.<sup>8)</sup>



[도 10] M.C. Escher<평면의 규칙적인 분할>.  
 1957, 유화

7) 테셀레이션 tessellation : 도형을 이용해 어떤 틈이나 겹침이 없이 평면 또는 공간을 완전히 메꾸는 미술 장르 .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8) 김성웅, (2007), “안과 밖의 공간(空間) : 탈근대 공간의 불확정성, 상대성, 변화하는 경계적 특성에 대하여 = (The) space of inside and outside” , 석사학위논문, p.25.

작가들에게 변화된 공간개념은 각자 개성과 작업의 방향,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안과 밖의 가시적인 경계면에 집중하게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체와 비어있는 공간 사이의 관계성 고찰을 통해 물체의 경계를 도자라는 물질로 표현한다. 또한 비어있는 공간을 작품의 주요요소로서 수용하고 본인의 고유의 언어인 경계표현을 통해 비어있는 공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 2. 경계와 공간에 관련한 작품사례연구

### 1) 그렉 페이스 Greg Payce ( 1956 -)

그렉 페이스는 물레성형을 기본으로 화병(Vase)이나 항아리(Jar) 형태의 용기를 제작한다. 그는 기능성에 초점이 맞추지 않고 돌 또는 그 이상의 기물들을 나란히 배열하면서 생기는 공간에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업하는 작가이다. 결국 그가 표현하는 작품의 주제는 오브제로써의 매스(mass)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형성되는 또 다른 공간, 즉 기물(물체)의 윤곽선(경계)이 만들어 내는 비어있는 공간(배경)에 대한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가 만든 기물의 윤곽선, 그것으로부터 형성되는 네거티브 공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sup>9)</sup>



[도 11] Greg Payce  
〈Entre La passion et la raison〉. 2008.  
도자 , 38x53x26cm

[도 11] Greg Payce〈Entre La passion et la raison〉(200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물의 굴곡은 인간의 옆모습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두 개의 기물이 배열 되기 전에는 특정 형태를 결정지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물의 윤곽선이 대상으로 인식되면 그 나머지 공간은 배경이 되어버린다. 평면이미지와 비교하여 입체작품은 물질로 존재하는 대상과 네거티브 공간의 구분이 뚜렷하다. 두 개의 기물이 마주하면서 하나의 닫힌 네거티브 공간을 만들고, 만들어진 공간은 이미지를 체계화 시키면서 새로운 포지티브 공간을 형성하여 대상을 인식하도록 하는 구조적 역할을 취하고 있다.<sup>10)</sup> 즉, 포지티브 공간의 나열을 통해 생긴 물체의 경계로

9) 윤지용, (2016), “네거티브(Negative) 공간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제13권 2호, p.107.



네거티브 공간을 지각하는 방법을 잘 드러낸 작품사례이다.

## 2) 나움 가보 Naum Gabo (1890 - 1977)

가보는 20세기 초의 과학개념을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 비어있는 공간을 작품의 주요 요소로 자신의 조각에 반영하였다. 그는 빈 공간을 수용하는 ‘주축’ 으로서의 조각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비어있는 공간을 조각의 주요 요소로 나타내기 위해서 고체 기하학과 용적측정법에 관해 도식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것을 조각에 표현함으로써 서로 맞물린<sup>11)</sup> 면에 의한 구축물을 형성하였다.



[도 12] Naum Gabo  
〈구축된 머리(Constructed Head No. 2)〉. 1916  
스틸 , 176x124x124.3cm

가보는 사실주의자임을 밝히며 ‘공간’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며 용적측정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다.<sup>12)</sup>

[도 12]〈구축된 머리(Constructed Head No. 2)〉.(1916)은 이를 적용해 내부 구조를 드러내 그의 조각적 목표를 실현한 작품이다. 이는 기존의 양감중심의 닫혀 있었던 조각에서 벗어나 공간으로 확장된 열린 조각을 이루었고, 보이지 않는 네거티브 공간이 조각의 조형요소로 실체화되는 계기를 이룸에 있어 의의가 있다.

10) 윤지용, (2016), 위의 논문, pp.107-109.

11) 한지현, (1998), “나움 가보(Naum Gabo)의 구축주의 조각-빈 공간의 조형화”, 석사학위논문, pp. iv ~33.

12) 윤난지, (2009), “ 미술, 과학, 과학기술: 나움 가보와 라즐로 모홀리 나기의 작업”, 미술사논단 제29권, p.302.

3) 레이첼 화이트리드 Rachel WhiteRead (1963 - )

레이첼 화이트리드의 조각은 비어있는 공간의 개념을 주제로 가져온다. 주로 수지, 석고 및 고무를 사용하여 공간을 주물 뜨는 방식을 사용하며 집과 집안의 물체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간을 만들며, 부재와 기억, 그리고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비물질적 공간을 드러낸다.<sup>13)</sup> 그녀가 박제하고자 하는 건 일상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눈여겨 볼 일이 없는 대상의 뒷면, 아랫면, 내부의 모습들이다.<sup>14)</sup>

그녀의 대표작인 [도 13]〈One Hundred Spaces〉(1995)는 부재를 증명하듯 주목하지 않는 공간인 의자아래 공간을 주물로 뜯은 작업이다. [도 14]〈Detached III〉(2012)은 정원에 세워진 창고물의 빈 공간을 콘크리트와 철로서 주물을 뜯은 작품으로, 빈 공간에 부피를 부여하는 네거티브방식의 작업이다.



[도 13] Rachel Whiteread  
〈One Hundred Spaces〉. 1995.  
레진 , 100개의 유닛(가변설치)



[도 14] Rachel Whiteread  
〈Detached III〉 . 2012  
콘크리트와 철, 196x172x294 cm

이렇게 존재해왔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듯 여겨졌던 것들을 드러내어 보이게 함으로써, 지각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 비가시적이었던 것들을 가시성의 세계로 끌어들인다.<sup>15)</sup>



[도 15] Rachel Whiteread 〈House〉. 1993. 콘크리트

13) 조지현, “브루스 나우만의 네거티브공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p.27.

14) 조지현, 위의논문, p.28.

15) 고경호, 김제도, (2012), “레이첼 화이트리드의 경계의 공간”, 조형디자인연구, 한국조형디자인협회, 제20권, pp.27-48.



[도 16] Rachel Whiteread  
 <House>을 위한 연구. 1992.

[도 15]<House>(1993)는 빅토리아 양식의 주택 내부 공간 전체를 콘크리트로 주조한 작품으로 콘크리트를 부은 후, 외부의 벽을 뜯어내 원형의 형태만을 남긴 것이다. 빈 공간 이라는 비물질질을 물질화하여 부재를 시각화하여 드러낸다.<sup>16)</sup>

#### 4) 브루스 나우만 Bruce Nauman ( 1941 - )

나우만은 다양한 작업을 통해 무엇이 ‘안’ 과 ‘바깥’ 인가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대상을 바라보고자하였다. 나우만은 종속적이고 음성적 공간을 작업의 주제로 드러냄은 물론이고, 인식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면 가시화되지 않는 네거티브공간의 성격을 작업에 반영해 왔다.

나우만은 작품이 미완성처럼 보이도록 작품의 내, 외부를 함께 드러내어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결과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과정을 드러내어 프로세스 아트로서의 네거티브적 특성을 나타내었다.<sup>17)</sup> [도 17] Bruce Nauman <Square Depression> (1977-2007) 작업은 한 변의 길이가 25m로 되어 있는 사각형을 역 피라미드 형태로 들어가게 만든 대지 조각으로서 공간의 내부의 관람자는 걸어 들어가 중심에 서면 작품에 둘러싸여 밖이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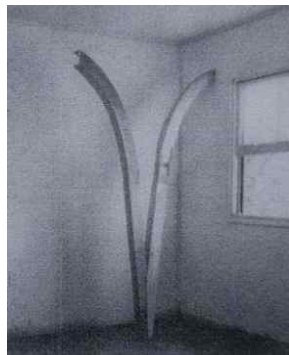
16) 고경호, 김제도, (2017), 위의 학술논문, p.34.

17) 조지현, 위의논문, p.63.



[도 17] Bruce Nauman  
 <Square Depression> , 1977-2007  
 콘크리트 조각  
 25x25mx2.3m

또한 나우만은 [도 18] Bruce nauman <Untitled> (1965)에서 볼수 있듯이 한쪽 면이 들여다보이는 틀에서 떠난 거울 이미지의 형태의 작품은, 화이버 글라스로 떠내는 과정에서 석고의 부스러기들이 표면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 프로세스가 작품의 필수적인 요소로 드러나게 된다.



[도 18] Bruce nauman  
 <Untitled>. 1965  
 섬유 유리 와 폴리에스테르 수지, 210.8×121.9×8.9cm

##### 5) 아니쉬 카푸어 Anish Kapoor (1954 - )

아니쉬 카푸어 작품을 구성하는 것은 양극성의 이미지로서 반사관계(reflexivity)에 있는 것에 대한 접근이다.



[도 19] Anish Kapoor  
 <Cloud Gate 구름대문>. 2004  
 스틸 10x20.1x12.8m

[도 19] Anish Kapoor<구름 대문> (2004)의 거울효과는 반사하는 순간 자신의 오브제에 허상을 만들어 낸다. 오브제에 허상을 만들어 내면 오브제 표면은 세상과의 경계가 된다. 이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카푸어의 ‘구름 대문’은 건축 공간의 경계를 흥미롭게 제시 해준다.<sup>18)</sup>

작품의 시각적 요소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작가와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과의 소통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 이다. 또한 작품의 표현방식은 작가의 지각행위와 시각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 시각적 요소가 의미와 관련해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sup>19)</sup>

위의 작품사례를 통하여 경계와 공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 하는지 고찰하였다. 포지티브의 나열을 통해 생긴 물체의 경계를 통해 네거티브 공간을 인식 하거나, 과학개념을 기반으로 한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며 가시성의 세계로 끌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작가에 따른 다양한 해석과 접근법은 본 연구를 해 나감에 있어 공간 지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18) 김일석, 조철호 (2013), “건축과 조형형태에 나타난 경계와 시간의 연구”, 디자인융복합학회,

19) 박진혜, (2006), “시각요소의 표현방식과 공간의 확장= A method of visual elements and expansion of space”, 석사학위논문, p.3.

### Ⅲ. 작품제작 및 해설

#### 1. 작품계획

본 연구자는 물체의 경계(윤곽선)를 시각적으로 읽어내 작품이라는 조형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존재하지만 지각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비어있는 공간을 지각하고자 한다.

작품의 제작은 다음의 네 단계의 순서로 진행한다.

첫째, 경계를 읽어내기 위해 물체와 네거티브 공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진으로 기록한다.

둘째, 사진으로 기록한 공간에서 물체와 네거티브 공간 사이의 경계인 물체의 윤곽선을 따라 드로잉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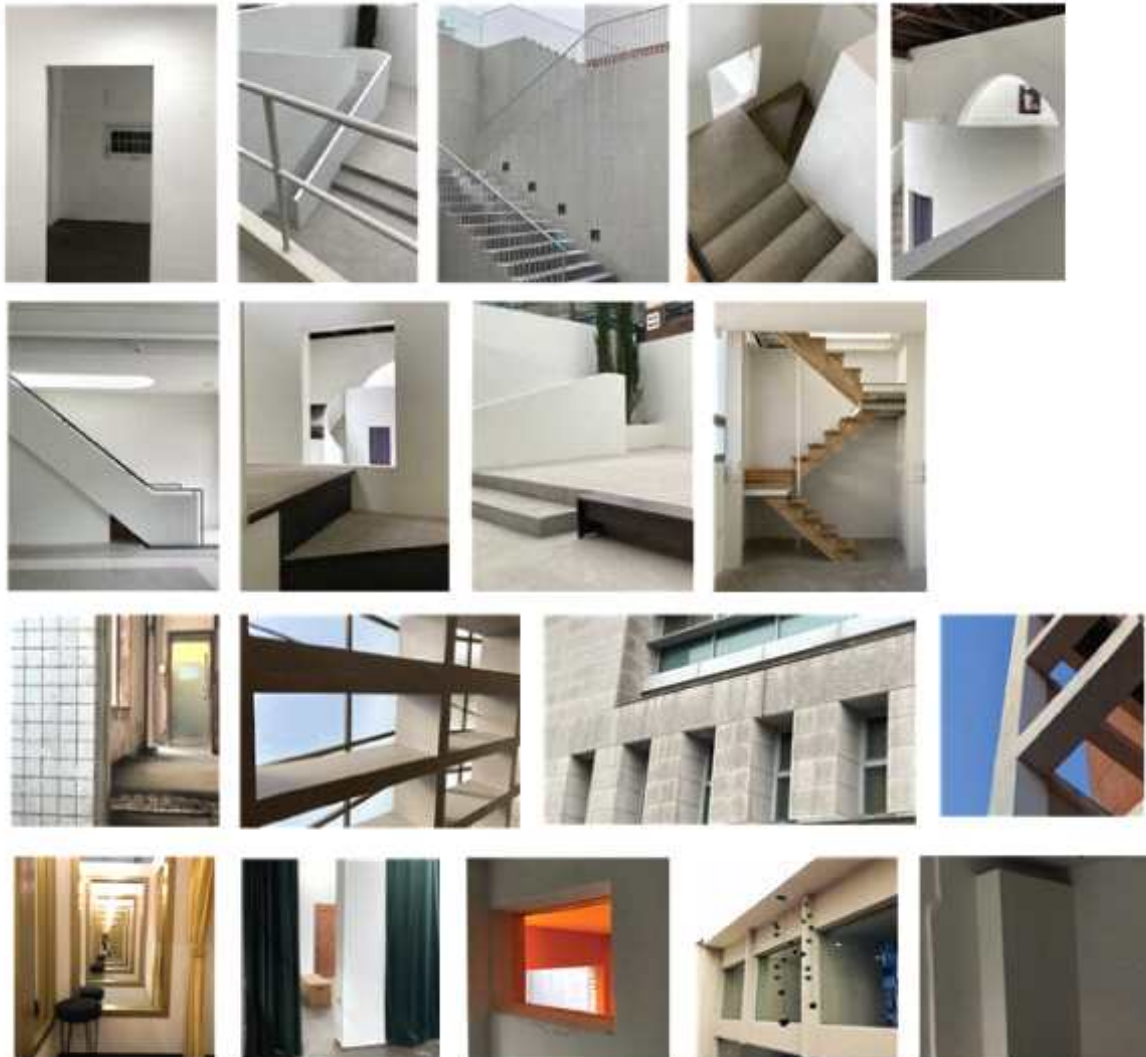
셋째, 드로잉을 통해 드러난 경계에서 도출된 선 형태들을 작품으로 제작한다.

넷째, 전시공간에 작품으로 제작한 경계를 통해 비어있는 공간을 지각할 수 있도록 구성, 설치한다.

## 2. 제작과정

### 1) 사진으로 기록

본 연구자가 경험했던 공간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주로 처음 마주한 공간의 낯선 공간을 기록한 이미지들이다. 이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들어설 때면 존재하지만 쉽게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비어있는 공간의 존재성에 대해 어떻게 조형적 언어로 표현할 것인지 연구했고 이의 첫번째 단계로 공간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도 20] 사진 기록



## 2) 드로잉

조형 표현에 앞서 경계를 시각화하기 위한 드로잉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진으로 기록한 곳 위에 물체와 빈 공간 사이의 경계인 물체의 윤곽선을 따라 그려 드로잉 하였다. 3D의 공간을 2D의 평면공간에 드로잉 한 뒤 다시 작품인 3D로 제작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도 21] 드로잉



### 3) 제작

#### (1) 성형

드로잉에서 경계로 도출한 선들을 코일링 기법을 이용해 형상을 구축하였다. 부분으로 제작한 오브제의 이음새부분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였다. 얇고 긴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 오브제의 연결부분에 나무 봉을 넣을 수 있게 제작과정에서 나무 봉 두께만큼의 구멍을 내주었다. 또한 공간에 설치되었을 때 선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 그에 맞는 비례로 선의 두께를 3.5cm로 정하였다.



[도 22] 성형과정

#### (2) 흑 화장토 사용 및 소성

색채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 낸 시각 결과물이다. 또한 색채를 인식하는 데에는 지각만이 아니라 의식과 정서, 체험 등 모든<sup>20)</sup> 차원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색채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의미있는 선택적 기호이다.

칸딘스키와 같은 서양인들은 검은색에 대한 시각을 모든 만물의 끝을 의미하고 있으며 희망 없는 절대적인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동양에서는 딱히 표현할 수 없는 무형, 무색, 무취의 형용불가능한 정신적 무한함의 세계의 연속<sup>21)</sup>됨을 의미했다. 또한 검은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한다.

20) 주후선, (2016), “꽃의 조형적 변형을 통한 이미지 표현에 대한 연구 :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Image through Formative Transformation of Flowers:Focused on rese”, 석사학위논문, p.18.

본 연구자에게도 검은색은 경험과 직관에 바탕을 둔 의미 있는 선택적 기호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1차 소성용 흑 화장토를 사용했다. 850도에 1차 소성 후에 색 화장토를 입힘으로써 색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2차 소성 후 연결해야 하는 작업 특성상 선택적으로 시유를 하지 않고 1250도에 2차 소성 하였다.



[도 23] 1차 소성 후 색 화장토를 바른 뒤 2차 소성 가마재임 후

#### 4) 설치

성형 할 때 나무 봉이 들어갈 수 있게 내어 둔 구멍에 나무 봉을 넣고 오브제끼리의 연결을 해주었다. 이후 [도 23]처럼 최종 설치됐을 때를 계산해 미리 구멍 내둔 곳에 낚시 줄을 연결해 고리를 달아주었다. 미리 구상한대로 전시장 천장에 부착한 자석고리에 [도 23]에 보이는 이 고리를 연결시켜 설치하였다.



[도 24] 설치방법

21) 원정연, (2006), “시각적 공간의 경계와 표현”, 석사학위논문, pp.20-22.

### 3. 작품해설

예술은 일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중에 하나이다. 일상 속 평범한 그 무엇이 작가의 표현방식을 만나 새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시작은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나는 처음 마주한 낯선 공간에서 비어있는 공간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이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들어설 때면 존재하지만 쉽게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비어있는 공간의 존재를 표현하여 지각 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의 첫 단계로 형상과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형상과 배경에서 구체적인 형상은 물질로 존재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형상의 특징을 구분하는 배경을 통해 형상은 이해되고 진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브제가 놓여 지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공간은 새로운 이미지의 합을 만들어 낸다. 오브제는 형체를 가지고 있고 공간(배경)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경계하는 윤곽선은 사물의 형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서로 다른 두 공간을 구분하는 비어있는 공간의 형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경계인 윤곽선에 대해 이론적 고찰한 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 space perception 1 >은 창틀과 그 너머의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창틀 너머의 비어 있는 공간은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공간일 것이다. 나는 비어있는 공간의 존재 방식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형상과 배경이 있는 곳에는 그것을 구분 짓는 경계가 있다. 여기서 경계는 물체의 윤곽선이다. 비어있다는 것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틀과 너머의 공간에 있는 물체의 윤곽선을 따라 드로잉하여 형태를 도출하고 이를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 space perception 2, 3 >는 계단과 벽면사이의 공간을, < space perception 4 >는 건물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을, < space perception 5 >는 건물외부벽면과 자연물 사이의 비어있는 공간의 존재를 표현하였다. 작품을 경계의 실제크기와 비례하게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공간에 설치함으로써 경계를 통해 비어있는 공간을 지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작품 1] space perception 1 . 2021  
Stoneware, Hand Building, Variable Size

[작품 2] space perception 2 . 2021  
Stoneware, Hand Building, Variable Size

[작품 3] space perception 4 . 2021  
Stoneware, Hand Building, Variable Size

[작품 4] space perception 3 . 2021  
Stoneware, Hand Building, Variable Size

[작품 5] space perception 5 . 2021  
Stoneware, Hand Building, Variable S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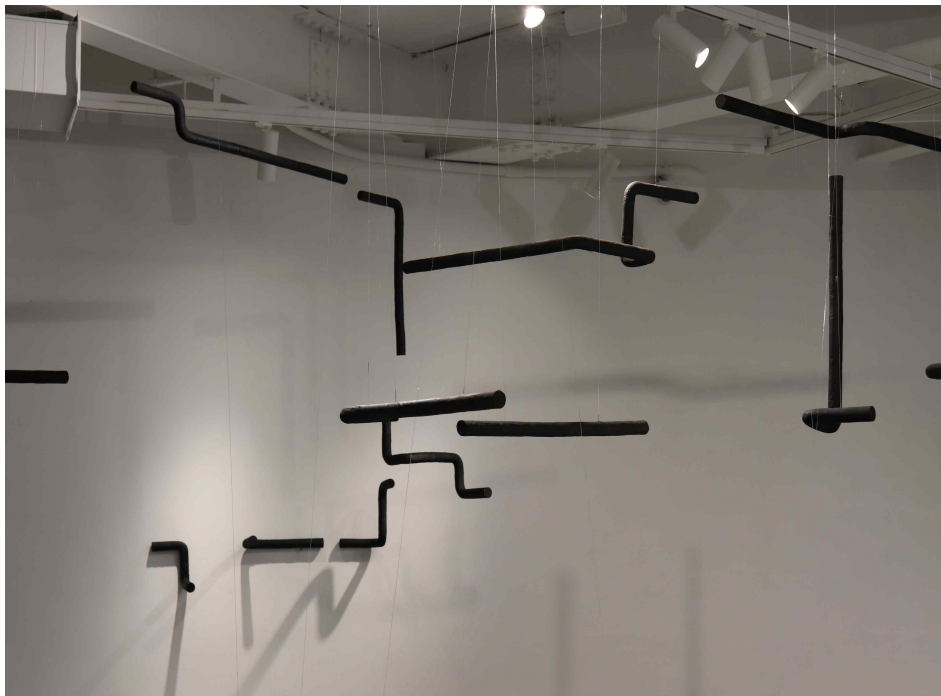
[전시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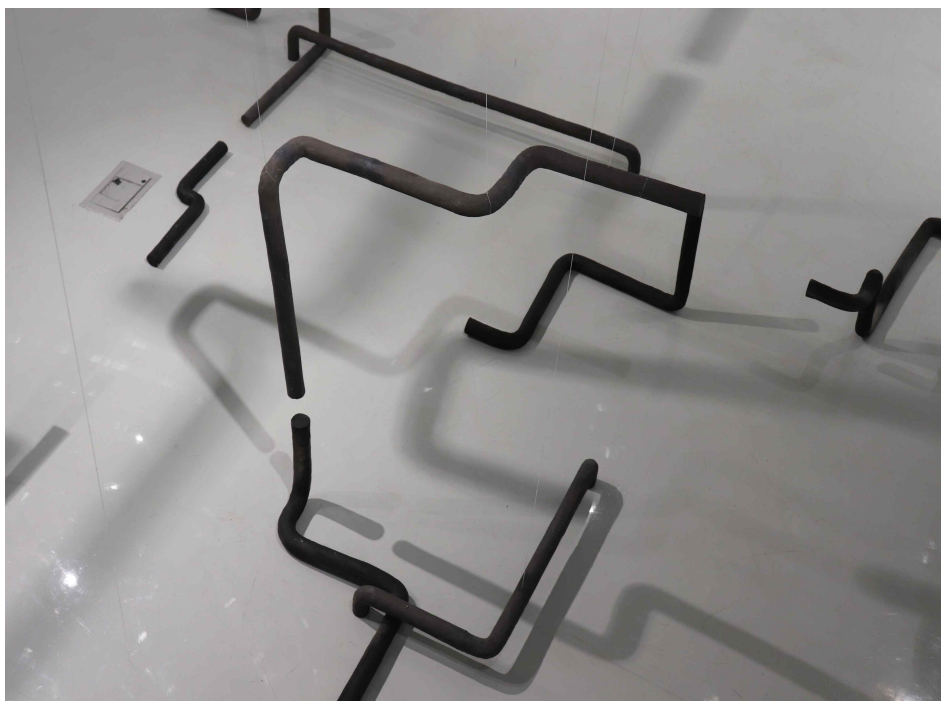
[도 25] 전시전경1



[도 26] 전시전경2



[도 27] 전시전경3



[도 28] 전시전경4



[도 29] 전시전경5

## IV. 결론

인간은 공간 내에서 활동하며 공간과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지각한다. 이러한 인간의 시지각적 공간 경험은 추상적 발상에 의해 조형적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공간에 대한 태도로서 작품에 반영되어지며 새로운 차원의 공간지각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빈 공간의 ‘있음’을 물체의 경계로서 표현하고자한다. 물체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읽어내고, 그 경계를 도자라는 물질을 통해 작품으로 제작하여 조형언어로서 표현하고 빈 공간의 ‘있음’을 지각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첫째, 경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물체와 빈 공간과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물체와 빈 공간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물체의 윤곽선을 따라 드로잉 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경계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공간에 설치하여 경계를 통해 비어있는 공간을 지각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비어있는 공간의 있음을 시각적으로 지각하였다.

본 연구는 경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경계의 개념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도자라는 물질로 본인만의 조형언어를 제시하였다. 이는 경계표현을 통해 비어있는 공간을 지각하는 방법론의 제시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1] 루돌프 아른하임, (2000),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 학위 논문

- [2] 최은지, (2017), “전경과 배경의 경계를 활용한 정보표현과 사용자 기억인출 효과”, 석사학위논문
- [3] 김성웅, (2007), “안과 밖의 공간(空間) : 탈근대 공간의 불확정성, 상대성, 변화하는 경계적 특성에 대하여 = (The) space of inside and outside”, 석사학위논문
- [4] 한지현, (1998), “나움 가보(Naum Gabo)의 구축주의 조각-빈 공간의 조형화”, 석사학위논문
- [5] 조지현, (2017), “브루스 나우만의 네거티브공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6] 박진혜, (2006), “시각요소의 표현방식과 공간의 확장”, 석사학위논문
- [7] 주후선, (2016), “꽃의 조형적 변형을 통한 이미지 표현에 대한 연구 :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Image through Formative Transformation of Flowers:Focused on rese”, 석사학위논문,
- [8] 원정연, (2006), “시각적 공간의 경계와 표현”, 석사학위논문

### 학회 논문

- [9] 윤지용, (2016), “네거티브(Negative) 공간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제13권 2호, p.103.
- [10] 윤난지, (2009), “ 미술, 과학, 과학기술: 나움 가보와 라즐로 모홀리 나기의 작업”, 미술사논단 제29권, p.302.
- [11] 고경호, 김제도, (2012), “레이첼 화이트리드의 경계의 공간”, 조형디자인연구, 한국조형디자인협회, 제20권, p.35.
- [12] 김일석, 조철호 (2013), “건축과 조형형태에 나타난 경계와 시간의 연구”, 디자인융복합학회,

### 웹사이트

- [13]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Abstract

## A study on ceramic sculptures expressing boundaries

- For the purpose of perceiving space -

Yoon, Seon hye

(Supervisor Kim, Dae Yong)

Dept. of Ceramic Art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umans operate in space and perceive space and what exists in it. These human visual and perceptual spatial experiences reveal formative possibilities by abstract ideas. This is reflected in the work as an attitude toward space and means a new level of spatial perception.

This study attempted to express and perceive space by visually reading the boundaries of objects in unfamiliar spaces experienced by them and producing the boundaries in their own formative language.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it was confirmed that the boundary changed with the spatial concept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boundary. In addition, Edgar Rubin's face and vase, which most systematically studied the discussion of shape and background, confirmed that the shape and background were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rough case studies of works, we will learn about the formative expression of boundaries and spaces. The visual element of the work is an essential element in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creating the work and the audience looking at the work. In addition, the expression method of the work is performed by the artist's perceptual behavior and visual elements. Therefore, how visual elements are treated in relation to meaning in order to interpret the work is an important part. As such, various interpretations and

approaches according to the artist provide the basis for subjectively interpreting spatial perception in conducting this study.

In the production of the work, unfamiliar spaces experienced by oneself were recorded as photos based on the work plan, and the form of boundaries was derived through drawing. In addition, the firing method according to the use of black clay was presented and the installation method was explained. In the explanation of the work,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were explain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boundary, it was possible to visually express the empty space to be perceived in an unfamiliar space through the boundary, a formative language.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presentation of a methodology for perceiving space through boundary expression.